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칭다오이공대학교 칭다오대학	기숙사비	6000위안 /한 학기
파견지역	칭다오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2016.02.29~ 2016.07.10	기타비용	매달 휴대폰 비용 약 50위안

##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성 별		학 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6. 07 . 22 .

파견자 : ( 서 명)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처음 도착하면 레벨테스트를 받는데 수준에 따라 초급A, B, 중급A, B 등으로 반이 나뉩니다.

중급A가 HSK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초급 B반으로 가게 됩니다. 초급반에 걸맞게 쉬운 것들부터 배우게 되는데 문법과 회화 등 복합적으로 가르쳐주는 보야 수업과 코위, 탕리. 이렇게 세 과목을 듣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은 보야 수업을 듣고 월수금은 코위를 2시간, 화목은 탕리를 2시간 듣게 됩니다.

보야는 다섯 단원이 나갈 때마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는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시험과 동시에 다섯 단원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매 수업은 단어를 배우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문법들을 배우고 본문을 정리하는 형식입니다. 워크북을 이용해서 배운 문법들은 연습을 합니다. 외국인들과 수업을 같이 듣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Q&A가 더 원활한 편입니다.

코위는 단어와 본문을 배우기만 하는 수업은 아닌 편입니다.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읽거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잦은 편이었고, 선생님은 최대한 다양한 표현과 중국인들의 습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어휘나 표현들도 실제 생활에서 쓰일 법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탕리는 단어를 배우고 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과목을 듣다보면 겹치는 문법이나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하게 되어 기억이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과제가 많은 편은 아닌데, 보야 수업에서는 워크북을 풀어오는 것 정도이고 코위는 중국인 친구에게 질문해서 오는 과제들이 종종 있는 편이었습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우선, 기숙사의 위치는 외국인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이 위치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수업을 강의실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창문으로 보면 강의실 건물이 보이고 걸어서는 3분 내외로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문과도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편이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이 있는 후문과는 약 1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학교 바로 앞을 제외하고 가깝게 놀만한 곳은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위치에 있는 마트 정도이며, 시내에 나가려면 버스로는 2시간 택시로는 1시간이 걸립니다. 평일에는 놀러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스도 금방 끊기기 때문에 대부분 주말에 놀러가야 합니다.

중국 음식이 잘 안 맞는 친구라면 칭다오를 추천할 정도로 한식집이 많은 편입니다. 우선 학교 후문에 나름 맛있게 하는 한식집이 있기도 하지만 택시로 30분 정도 나가면 난탄이라는 한식 거리가 있을 정도로 한식집이 정말 많은 편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기후가 아닐까 싶은데, 학교 주변이 칭다오 내에서도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라고 할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니다. 우선,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추웠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피부가 심각하게 건조해집니다.

점점 날씨가 풀리더라도 바람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겹옷을 입거나 해야 합니다. 바람 때문에 온몸이 틀 수 있으니 고보습의 로션 등은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햇빛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양산이 없다면 어딜 나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정말 많이 타기 때문에 온몸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1일 4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문을 잠그지만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통금은 없습니다.		
주요사항	퇴실 시에 검사를 꼼꼼히 하고, 고장 나거나 없어진 것은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해서 고쳐놓는 것이 편합니다.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이 건물의 오른쪽이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데 12층부터는 학생들이 살고, 그 아래층에는 선생님들이 사십니다. 건물의 왼쪽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수업을 받거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종종 중국인들도 와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기숙사는 2인 1실로 우리 학교 기숙사보다 훨씬 넓은 편입니다. 각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고 침대와 책상, 스탠드, 서랍과 옷장이 기본으로 있으며 바닥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내화를 사서 사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구를 옮기는데 터치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편이니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도는 햇빛이 매우 썬 편이고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기 때문에 여름에는 커튼을 치지 않으면 햇빛 때문에 잠에서 깨고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겨울에는 창문을 닫지 않으면 바람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층이고 저녁에는 기온을 추울 정도로 시원한 편이기 때문에 벌레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과 히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는 더위와 추위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온 방에 에어컨이 고장 난 방이 있는데 처음 간 날에 말해서 고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장났다고 말하면 고쳐주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본인만 깨끗하게 쓰면 청결이 보장되기 때문에 관상은 편입니다.

다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려면 기계를 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기계는 계속 켜놓고 살아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불편하지만 뜨겁게 해놓은 물을 다 쓰게 되면 차가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같은 시간대에 씻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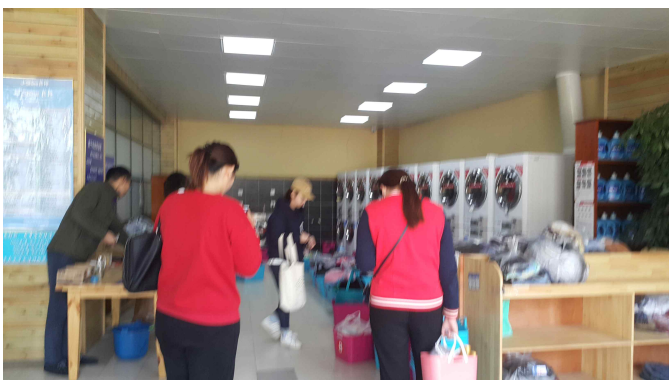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우선 교환학생, 유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친구들이 친구들의 것을 빌려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방마다 있는 개인 책상도 매우 좋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은 층마다 조금씩 다른 편인데 대부분의 반은 2,3층을 사용했습니다. 2층은 조금 큰 강의실에 사람이 많은 반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조금 소규모인 반이 사용을 하는데 2층에서는 약 20명의 학생들이 한 반에 속해있고, 3층은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반에 속해 있습니다.



학생 식당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파는 음식보다 싸지도 맛있지도 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충전식입니다.

세탁실은 원래는 세탁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고장이 난 이후로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따로 학교 안에 세탁방이 있고, 맡기면 거의 한 시간 이내로 해줍니다. 건조까지 다 해주는 것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빨간색 종이에 이름과 번호를 적고 12위안만 내면 이용 가능합니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처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는 막연히 중국 문화와 회화를 배운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환학생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중국뿐만이 아닌 중국으로 유학을 온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이 느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공부든지 오랜 기간 공부를 하게 되면 지겹기 마련인데, 실생활 그 자체가 공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배우기 힘든 중국인들의 습관적인 어휘들을 많이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중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다양한 중국 음식들을 맛보고 또 익숙해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끔씩 한국 음식이 많이 그리워서 대부분의 식사를 한식으로 하는 학생들이나 다이어트를 이유로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친구들도 보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먹는 것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왠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인 것만 같이 느껴졌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외국인이 되어보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언어뿐만이 아닌 가치관과 문화까지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당연하게 쓰지만 외국인이라서 헛갈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은 대부분 질문 답변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강의 형식의 수업을 듣다가 이런 형식의 수업을 들으니 조금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쭉뚝뚝했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을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교직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교환학생을 꼭 다녀와서 외국인이나 다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두 번 정도 중국의 휴일이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중국은 비자가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환 학생 도중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 항주, 북경 등을 다녀왔는데 청도가 있는 산둥성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주는 곳들이어서 중국의 크기만큼 각 도시들이 각자만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을 다음에 가는 친구가 있다면 다양한 곳의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칭다오이공대학에서는 오후에 심화반을 운영하는데 중국 학생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고, 흥미 있는 학생들은 찾아가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기 때문에 편하게 동아리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호수와 벤치도 꽤 많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바쁜 생활을 누리다가 중국에 오니 너무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딱 이때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를 잘 누리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